

#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의미<sup>1)</sup>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들어가며

2024년 12월 9일 교육부에서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문은 2025년 3월부터 적용된다. 표준보육과정은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라는 이름으로 2007년에 처음 고시된 이래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4차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이 적용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 관련 5번의 고시를 하는 동안 고시의 주체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담당 부처가 변경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은 0~2세 표준보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 고시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이미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세분화된 연령을 통합하고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다. 따라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0~5세 교육과정 개발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은 체제나 내용의 개정 자체보다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0~2세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 개발과 연수에 더 방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최근 고시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과 방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 가. 국내 동향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30.<sup>2)</sup>).

2023년 유보통합 추진단 성과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2024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0~5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당일

1) 본고는 교육부의 연구용역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김은영·강은진·임부연·정선아·박은혜·권혜진·김윤희·김희수, 2024)의 내용 일부를 요약, 변형, 보완하고 집필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

2) 교육부 보도자료(2023. 1. 30.),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에서는 '세계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배움 체계적 지원,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 고려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마련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0~2세의 경우에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와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 개정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에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되고 이에 근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이 일부 개정·고시되었다.

## 나. 국외 동향

국제적으로 0~2세 영아를 위한 교육지원은 1990년부터 의제에 포함되어 왔다. 1990년에 태국 줌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EFA(Education For All)'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이 목표 가운데 하나로 영유아교육과 보호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상은 2000년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포럼에서는 첫 번째 목표를 '포괄적인 유아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가장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2010년 9월 유엔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에 대한 세계대회에서 영유아교육에 대해 "The Moscow Framework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는 2022년에 UNICEF,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합동으로 제2회 유아교육에 대한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한 타슈켄트 선언문(Tashkent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는 2011년 개정된 국제표

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서 단계를 0~2세를 위한 01단계와 3세부터 초등 이전의 단계를 02단계로 구분하여 영아를 위한 시스템을 교육제도 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OECD는 영유아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Starting Strong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관 확대, 유아교육의 제도화 및 영아를 교육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제언, 유아교육의 질 관리, 모니터링의 중요성, 영아와 유아, 유아와 초등 전이의 중요성, 의미 있는 상호작용 지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또한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교육과정에서 참여의 중요성, 영유아 시기의 디지털 역량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꾸준히 하고 있다.

## 3.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령체계는 기존대로 0~1세와 2세로 구분하였다. 누리과정까지 생각한다면 전체 표준보육과정의 체계는 0~1세, 2세, 3~5세로 나누어진다.

둘째, 연령체계는 유지하되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존에 기본생활, 신체운동 영역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총 5개 영역으로 조정하였다.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와 내용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통합하여 기술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대강화 추세와 표준보육과정 목표에서 0~2세 목표가 통합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영역별 목표는 0~1세와 2세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부분은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 수정은 최소화하였다.

## 4. 0~2세 표준보육과정 지원 사업

교육부는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고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0~2세 교사들이 보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이고, 하나는 교원 대상의 연수이다.

0~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자료는 해설서, 0~1세 실행자료, 2세 실행자료,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 4종으로 개발되고 있다. 해설서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24- 23호)의 내용을 개정 취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고시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이다. 0~1세 실행자료와 2세 실행자료는 해설서에 근거하여 0~1세와 2세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보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며, 교사가 영아를 어린 학습자로 이해함으로써 영아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중심 보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 자료이다.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해설서에 근거하여 장애·장애위험, 이주배경 영아를 지원하는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을 돕는 자료로 모든

영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모든 영아와 만나는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안내한다.

이상 개발된 현장지원자료를 기초로 우선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담당자인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관계자, 교사들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연수를 지원할 강사요원과 교사들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컨설턴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5. 마치며

2024년 12월 9일 교육부의 표준보육과정 고시는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교육부가 이루어 낸 첫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향후 0~5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교육부는 0~2세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자료 4종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

0~2세 교사들은 이미 어린이집 현장에서 영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잘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더해진다면 영아들의 경험과 배

움은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0~2세 표준보육과정 일부 개정이라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부의 큰 비전과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현장지원자료」 안내문



### 해설서



- '해설서'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24-23호)의 내용을 개정 취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 '해설서'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의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 I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II 총론 해설
  - III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 IV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 부록 고시문, 신규대비표,  
표준보육과정 한눈에 보기



### 0~1세, 2세 실행자료

- '실행자료'는 해설서에 근거하여 0~1세와 2세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보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자료입니다.
- '실행자료'는 교사가 영아를 어린 학습자로 이해함으로써 영아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배움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중심 보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 자료입니다.

- I 학습자로서 영아 이해
- II 영아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 III 영아 중심 보육과정 실행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이주 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의 놀이와 배움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모든 영아와 만나는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안내하며, 반응적 지원자로서 보육과정 실행을 돕는 자료입니다.

- I 모든 영아 이해
- II 모든 영아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놀이와 배움
- III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실행
- IV 모든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지원사례